

Harper's BAZAAR

www.imagazinekorea.com
값 6,900원

2015 S/S Couture Report

고현정이 들려주는 봄의 왈츠
무대 뒤에서 만난 엄지원
백지연의 찬란한 오늘
한대수의 에너지 과

SPRING MAKE UP ISSUE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립스틱까지

EAT BUGS

루벤 톨레도의 다이내믹 라이프
LDP 무용단의 에너지
킨포크의 고향 포틀랜드
드론 침공, 뜰까 말까

PLUS

틸다 스윈턴, 린다 매카트
캐롤리나 헤레라, 빌비올
알마 조도르프스
플라토마스, 티에리 라스
비비안 마이어, 김성

Key Pieces for SPRING

별책부록

아티스트들의 예술적 행보를 담은
세 번째 아트 에디션

HARPER'S BAZAAR

ART





Equestrian Chic

기능성을 갖춘 패션을 강조하는 노엘 애즈마(Noel Asmar)는 '승마'를 기반으로 한 '노엘 애즈마 이퀘스트리언'의 디자이너다. 2015년 빅 트렌드로 떠오른 애스레저 룩을 선보이는 셀렉트숍 더랩 108 오픈을 기념해 서울을 찾은 그녀를 만나 건강하고 패셔너블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 여성들의 매끈한 피부와 스타일리시한 센스에 반했다며 인사를 건네는 노엘 애즈마의 첫인상에선 건강하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캐나다인의 에티튜드가 묻어났다. 아름다운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밴쿠버의 이퀘스트리언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는 그녀는 어릴 적부터 승마를 즐기며 활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겼다. 긍정의 에너지 가득한 그녀와의 인터뷰는 마치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은 테라피처럼 느껴졌다. 삶의 밸런스를 찾고, 열정을 품은 것에 도전하며 행복을 찾으려는 애즈마의 철학은 그녀의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한다.

도시에서 주로 생활하니 승마가 삶의 일부인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궁금하다. 아웃도어적이고 건강에 많이 신경 쓰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다. 말과 여러 동물들, 각각 3살, 7살, 9살인 아이 셋과 함께 자연의 일부가 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승마는 내게 요가와도 같다. 말과 함께 자신을 가다듬으며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날에는 헛간에 가서 말을 그루밍하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한다. 비즈니스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현재 내 라이프스타일의 가장 큰 이슈다.

말을 탈 때의 기분은 어떤가? 강해진 느낌이다. 1천5백 파운드의 말이 아래에서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니, 그 위에 앉아서 평화롭게 달릴 때에는 자신감이 배가된다. 말은 스피드 넘치고 활동적이기도 하지만 그날 그날 사람의 기분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잔뜩한 동물이다.

함께하는 말의 이름은? 제이크. 모차르트라는 말도 있고 아기 조랑말 더치스도 있다. 아이들이 더치스를 정말 좋아한다.

어떻게 이퀘스트리언 룩을 디자인하게 됐나? 승마를 할 때 내가 필요하고 입고 싶은 옷을 만들려던 것이 시작이었다. 밴쿠버에서 살 때 말을 타려면 눈과 비가 많이 와서 불편한 부분이 많았다. 그런 날씨에 승마를 하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디자인한 것이 바로 '올 웨더 라이더(All Weather Rider)' 코트였다. 코트 앞과 뒤에 지퍼가 있어서 말을 탈 때 지퍼를 열면 코트가 폴 스커트처럼 펼쳐져 안장까지 물에 젖지 않도록 커버할 수 있다. 당시 '올 웨더 라이더'가 영국에서 열린 2011버밍햄 승마용품 박람회(BETA International 2011)에서 올해의 가장 혁신적인 승마복 상을 받았다. 그때 '아, 내가 뭔가 괜찮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곧 미국, 캐나다에서 제품을 선보였다. 그 후 점점 라인을 늘려가다 보니 승마 스페셜 라인인 물론 라이프스타일 웨어, 캐시미어 제품, 레더 핸드백 등 다양한 제품들을 디자인하게 됐다. 디자인에 있어선 옷의 형태와 피트에 테크닉적으로 접근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 안장 위에서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적이고 스트레칭한 소재를 개발해 디자인했다. 그것이 노엘 애즈마 이퀘스트리언 룩만의 차별점이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템에 약간의 스판덱스를 가미했고, 방수 기능은 물론 부드럽고 시원한 패브릭을 사용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면서도 몸이 숨 쉴 수 있도록 했다. '올 웨더 라이더' 코트의 경우 여름에는 메시 소재와 본딩하고 겨울에는 플리스를 본딩해 다양한 컬러로 선보이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웨어를 선보이는 다른 패션 하우스보다 피트에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한 제품을 위해 6-7개의 프로토타입 샘플을 제작해 파티 사이즈부터 빅 사이즈까지 다양한 체형에 맞도록 조율하고 또 조율한다.

아시아 마켓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XXS 사이즈를 제작한다. 더랩 108에서는 미디움 사이즈까지 선보이고 있다. 스타일링에 있어서는 다양한 레이어링을 권유한다. 레이어링을 통해서 체온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 물론이고,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트렌드에 맞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 좋다. 너무 스포티하게 입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운동할 때나 승마를 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룩의 일부가 되는 애슬레틱 시크를 연출해보라.

당신은 항상 당신 디자인을 입나? 그렇다. 승마할 때는 물론이고 오피스에서 일할 때도 심지어 이브닝웨어도 입는다.

캐시미어 스웨터 제품들은 낮밤으로 활용하기 좋다. 심플하고 클래식한 룩을 즐긴다.

노엘 애즈마 디자인의 키워드 세 가지를 꼽는다면? 건강함(Wellness), 기능(Function), 권한(Empowerment).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충전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고 싶다. 요즘 럭셔리란 더 이상 내가 어떤 디자이너 레이블을 입느냐가 아니다. '나 자신을 행복하고 파워풀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조용한 뉴 럭셔리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비결을 공유해달라. 평소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게 일상이다. 아웃소싱 없이 인하우스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70% 이상의 제품들을 밴쿠버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한 업무부터 브랜딩 일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 바쁘다.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라이프스타일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 전에 항상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고 즐기는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행 역시 에너지와 많은 영감을 얻게 해준다. 여행지에선 평범한 것도 비범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가 생긴다. 일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밸런스'를 찾으면 삶은 더 행복해진다. 얼마 전에는 우리 집 헛간에서 멋진 디너를 했는데, 헛간 가운데 복도에 긴 식탁을 놓고, 샴들리에와 향초, 화이트 라넨과 건초로 장식해 정말 환상적이었다! 굳이 밖에 나가서 멋진 곳에 가고 맛있는 것을 사 먹지 않아도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는 게 좋다. 아이들에게 건초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집에 정원도 만들었는데 그런 작은 활동들도 나의 삶을 건강하게 채워준다.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지중해 해안가. 음식도 지중해 요리를 좋아한다. 인스피레이션 트립으로는 피렌체와 런던을 자주 찾는다.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 멕시코로 휴가를 갈 예정이다.

승마 외에 다른 운동도 많이 하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우리 오피스의 90% 이상이 여성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주기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를 초대해 직원 모두가 같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티크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2백80여 개의 스토어에서 우리 제품을 만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 부티크를 더 많이 오픈하고 싶다. 올해에는 두바이에 두 개의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더럽 108에서만 익스클루시브로 만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5 S/S 시즌에 남성 캡슐 컬렉션을 작게 진행했는데, 그 규모를 조금씩 늘려나갈 예정이다. 현재 노엘 애즈마 향초도 선보이고 있는데, 옷이나 액세서리 말고도 트레이닝 세트 같은 것처럼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 필요한, 뭔가 빠진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싶다. **B** 에디터/백지연



그녀의 말 '제이크'와 함께한 디자이너 노엘 애즈마



모던한 디자인의 재킷은 36만8천원으로 노엘 애즈마 by 더럽 108



노엘 애즈마 스타일에선 심플 클래식함을 좋아하는 그녀의 취향이 묻어난다



올 웨더 라이더 재킷을 입은 모델들



기능성과 스타일을 갖춘 올 웨더 라이더 재킷은 52만9천원으로 노엘 애즈마 by 더럽 108



건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더럽 108의 룩북



로고 레터링 티셔츠는 9만9천원으로 노엘 애즈마 by 더럽 108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자리한 애스레저 편집숍 더럽 108에서 노엘 애즈마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